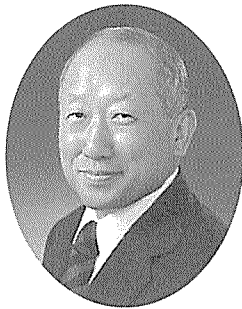


## 인터넷 경제의 전개와 대응



박수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지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생활속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의 출현과 활용이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보통신과 컴퓨터 분야의 발달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경제를 기본에서부터 바꾸어 놓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에 의한 통신으로 인하여 지구 어느 지점에서 다른 어느 지점까지도 8분지 1초의 시간적 간격만 두고 떨어져 있는 셈이 되었다. 이때 초초란 지구 끝에서 다른 반대편 끝까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시그널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수만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지구상의 국가나 도시도 이제 는 지리적 분지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에 의한 통신방법은 기업의 생산 및 유통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어 놓고 있다.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 인터넷을 통하여 책을 파는 제도는 이미 미국인의 생활 속에 하나의 일상적인 도서구매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책의 유통방법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미래의 서점은 한권의 책도 가지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책 없는 서점이라는 독특한 영업체제가 구축되고, 책값도 하루아침에 20%이상 낮추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마케팅분야에서만 아니고 기업의 생산, 구매, 품질, 원가 관리 등 경영의 전체 기능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하여 원료나 부품 또는 반제품을 구입할 때 과거와 같이 한정된 공급업체만을 상대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당 공급업체를 상대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원료나 부품을 공급받는 체제가 확립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GMC가 Trade X change라는 인터넷 구매 시스템을 발표하고 2000년

새해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인터넷 사이트가 활성화되었을 때 GMC 모든 소모부품을 이것을 통하여 구입할 예정이고 그 액수가 약 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석유화학 공장이나 전력생산시설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을 인터넷상에 공시하여 누가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중재하는 사업도 전개되고 있다.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을 인터넷상에서 공개함으로써 부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범세계적으로 중개됨으로써 구매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구매시장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거래가 미술작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가의 고전적 미술작품까지도 국가기관의 인증하에 인터넷을 통하여 옥션(auction)방식으로 전세계 미술 애호가에게 판매하는 사이트도 개설되어 이미 성업중이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거래는 소비제품이나 부품 또는 원료 구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의 생산체제에도 기본적 변화가 일고 있다. 즉 제조업에서 제조없는 생산체제를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수주 받은 물건을 몇 시간 내에 공급하여 배달해 주는 체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예로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PC를 판매하고 있는 델(Dell)이라는 PC제조업체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판매대리점을 없애고 인터넷을 통하여 PC를 판매함으로써 대리점 마진만큼 가격을 낮추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자마자 공장 주변에 위치한 부품공급 업체의 창고에서 PC부품을 공급받아 PC를 조립하여 주문자에게 36시간 이내에 배달되도록 하는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판매가 매일 20%씩 증가했다. 특히

모든 거래가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됨으로써 판매대금 회수도 하루만에 끝난다. 반면에 컴팩 등 경쟁회사에서 대리점을 통하여 PC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금 회수에 35일이나 걸려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인터넷 판매방법은 우리 경제에서도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전문판매회사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도 인터넷 상점들이 출현하여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 판매에 새로운 영업체제를 구축하여 판매단가를 몇십 퍼센트씩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 동시에 대응전략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경제가 우리 앞에 전개됨에 따라 이제까지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영업체제나 생산체제는 몇 년내에 못쓰게 될 것이다. 즉 책이 있는 서점보다는 책이 한권도 없는 서점이 전국 서적유통을 석권할 것이고,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어느날 갑자기 대리점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영업체제가 일반화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변화는 단순히 소비재 유통뿐만 아니라 산업재의 유통과 모든 기업의 구매체제까지도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둘째, 이런 변화는 현재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 구조 즉 금리, 임금, 지가, 물류비용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쌓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거대하게 밀려오는 전자경제의 모습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내일이면 늦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라도 당장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